

이황과 기대승의 우정 오페라로 만난다

'조선, 브로맨스' 16일 광산문화회관 13년 논쟁 초점... '문화창작소 그레이스' 제작

조선 시대 동인의 스승격이자 이기론으로 성리학을 완성시켰다고 평가받는 퇴계 이황(1501-1570), 그와 8년여 동안 이어진 논쟁을 벌인 고봉 기대승(1527-1572). 이들은 성리학 체계의 모순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논쟁으로 이름을 남겼다.

고봉과 퇴계의 브로맨스(Brother+Romance·남자들 사이의 친한 우정)를 오페라로 만나는 공연이 열려 눈길을 끈다.

'문화창작소 그레이스' (대표 이승규)가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460여년 전 고봉 기대승과 퇴계 이황 두 학자의 이야기를 담은 오페라 '조선, 브로맨스'를 공연한다.

광주시, 광주문화재단, 광산구, 행주기씨문헌공과 종종, 행주기씨덕장군과 종종 등이 후원하는 이날 공연은 지난 2월 월봉서원 강수당에서 진행한 쇼케이스 공연을 보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무대에 올리는 자리다. 스탠드 낭독 공연 형식으로 진행했던 지난 공연과 달리 퍼포먼스나 조명, 무대장치 등 연출적인 면을 추가했으며, 고봉과 퇴계가 각각 고향으로 떠난 후 서로를 그리워하는 장면 등을 추가해 애뜻함을 더했다.

작품은 특히 26살에 이르는 나이차분 아니라 영남과 호남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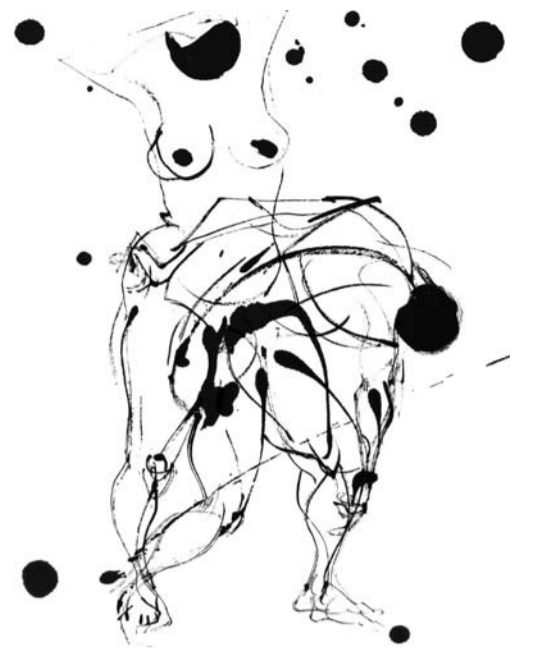
16일 오페라 '조선, 브로맨스'를 공연하는 '문화창작소 그레이스' 단원들.

는 지역차, 성균관 대사성과 새내기 선비라는 직책의 차이까지 넘어서서 13년 동안 120여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상논쟁을 펼친 이들의 우정에 초점을 맞췄다.

공연은 총 7장에 걸쳐 진행되며, '향기로온 만남'으로 시작해 '젊은 선비의 도전', '대사성의 편지', '사단칠정' 등 12곡의 연주곡과 노래로 두 학자 교류의 시작과 우정, 이별과 꿈속 재회, 영원한 만남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문진영 작가가 극본을 썼으며 바리톤 권용만과 테너 장호영이 각각 퇴계와 고봉 역을 맡는다. 테너 여혁인이 제자 역으로 출연하며 연극배우 조혜수가 이야기꾼으로 등장해 노래 사이 해설을 들려준다. 연출과 작곡, 연주는 이승규 작곡가가 담당한다.

한편 이번 공연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모금활동을 진행하는 2019 문화예술펀딩프로젝트 '만세만세 만(萬)만(滿)계'로 진행된다. 관람료 1만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춤추는 몸' 전현숙 크로키전

50여 작품 18일까지 자미갤러리

전시장에 들어서자 바흐의 '무반주첼로곡'이 흐른다. 전현숙 작가가 평소 작업할 때 자주 듣는 음악이다. 묵직한 선을 사이로 보이는 건 마치 춤을 추듯 다양한 몸짓을 보여주는 크로키 작품들. 단순화한 선과 점으로 표현해낸 크로키엔 한 인간의 감정과 세월이 그대로 담겨 있다.

자미갤러리가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념 기획전으로 전현숙 작가를 초청, 오는 18일까지 전시회를 열고 있다. '춤추는 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전 작가는 배접한 한지 위에 그린 50여점의 크로키와 설치 작품 등을 전시한다.

예쁘고 아름다운 몸보다는 세월이, 감정이 묻어나는 몸에 마음이 간다는 전 작가의 크로키 작품은 강인하고 힘이 넘친다. 작가는 손가락 굵기의 대나무를 풀라 펜촉처럼 끝을 뾰족하게 깎고 소금물에 한 번 삶은 후 먹을 짙어 바르며 순간적으로 빠르게 그려나간다. 의도된 계산으로 먹을 뿌려 또 다른 느낌도 만들어낸다.

전 작가는 10여년전부터는 광주시립미술관 문화센터에서 매주 한 차례씩 수강생을 가르치며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 4년 전부터는 서울에서 매주 다른 모델을 초청해 드로잉 작업을 한다. 모델이 하나의 포즈를 취하는 시간은 2분-5분 정도. 짧은 순간 즉흥적으로 남과 여의 인체를 묘사해 나간다.

화려한 색감의 인물상으로도 잘 알려진 전 작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이들은 '크로키 작품'에 주목한다. 1994년부터 크로키를 해온 전 작가는 '황토 드로잉회' 창립멤버이기도 하다. 그림 그리기를 중단했던 자신을 다시 그림만으로 끌어낸 박수만 작가와 함께 크로키를 했고 1999년 첫 개인전을 당시로는 드물게 크로키로 진행했다.

"크로키의 매력은 현장감입니다. 그날 모델과 교감이 잘되고, 음악, 날씨 등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질 때면 마음에 맞는 작품이 나오죠. 거기서 오는 어떤 희열이 있죠. '자기 그림이 자기 스승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망했다고 생각하고 그림도 허투로 버리지 않고 간직하며 늘 되새겨 봅니다."

눈에 띄는 건 설치 작품이다. 평면 크로키 작품만을 보여주는 단순함에서 벗어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드로잉을 인쇄한 투명한 필름 24장을 매달아 '연속 동작처럼', '춤추는 것처럼' 배치했다. 또 화면을 위 아래로 분할해 누드 크로키와 먹으로 까맣게 칠한 공간을 배치한 작품도 인상적이다.

"크로키 작업은 20년 넘게 해왔지만 늘 새롭고 힘들어요. 화면 안에 모델과 나의 감정을 순간적인 선으로 그려넣는 과정이거든요. 나이를 먹으면 감정도 변하고 몸도 변하죠. 크로키는 아름다운 '선' (線)을 그리는 걸 넘어 '감정'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올해 마지막 '풍류달빛공연'

12일 무등산생태탐방원

매일 보름달 가까운 토요일에 열리는 공연, '풍류달빛공연' 올해 마지막 공연이 12일 오후 6시 무등산생태탐방원에서 열린다. 국악인 김나니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공연은 국악 단체 '오롯이'와 '방수미와 전주판소리합창단'이 참여한다.

'오롯이'는 판소리 명창 정정렬이 중국 송나라 소식(蘇軾, 소동파)의 시 '적벽부'에 곡조를 붙여 만든 판소리 단가 '적벽부', 판소리 '심청가' 중 '상여소리', 진도 씻김굿의 '길뉘음'을 편곡한 '상여소리: 길', 판소리 '심청가' 중 '중타령'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담아낸 '헬로우 나그네' 등을 공연한다.

'방수미와 전주판소리합창단'은 조선 말기 신재효가 '광대'를 판소리 합창으로 편곡한 '신(新)광대', '사철'에 동요·대중음악의 느낌을 더해 재해석한 '신(農)사철', 동학농민혁명 당시 활약했던 김계남 장군을 기리는 곡 '개남야 개남야', 일제강점기의 저항 정신을 다룬 이육사의 시 '광야'를 사설로 한 곡 '광야' 등을 무대에 올린다.

오롯이는 최잔다, 민현경, 왕윤정 등 3명의 여성 소리꾼을 중



전주판소리합창단

심으로 하는 국악 단체로, 이날은 신원섭(북), 안현선(가야금), 김장립(거문고), 김철진(대금), 최태훈(피리), 이종현(아쟁)이 함께한다. '방수미와 전주판소리합창단'의 방수미 명창은 '올해의 젊은 예술가상' 전통예술부문 천년 전주 천인갈채상,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대회' 명창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국립민속국악원 상임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이날 공연은 12월 7일 오전 5시 MBC '우리가락 우리문화', 12월 14일 '특집 풍류달빛공연' 등 방송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무료 공연.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출토 유물 조명

오늘 국립나주박물관서 국제학술대회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출토 유물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임승경)와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화수)은 제5회 대한민국 마한문화제(11-13일)를 기념해 11일 국립나주박물관 강당에서 '고대 동아시아의 금동신발과 금동관' 국제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제1부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의 금동신발과 금동관, 제2부 고

대 중국과 일본의 금동신발과 금동관으로 주제를 나눠 총 7개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했다. 발표는 '삼국시대 마한사회 위세품(威勢品)의 의미와 성격'에 대한 전남대학교 임영진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1호 석실의 매장 의례와 금동신발의 특징(오동선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문양 분석과 의미(성윤길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고대 중국의 금은기(金銀器)와 상상의례(치동광 북경대학)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내년 1월 5일까지 국립나주박물관 기획 전시실에 개최하는 특별전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마한사람들, 큰 무덤에 함께 잠들다'와 연계해 다수의 출토유물과 연구 성과를 직접 볼 수 있는 자리다. /박성천 기자 skypark@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만족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공인 명세서인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신양파크호텔 12월 송년모임 특별 감사이벤트

한 해를 마감하는 귀하의 소중한 모임, 귀하를 위한 특별 혜택을 준비하였습니다.

12월 송년모임 혜택 (연회행사시 적용)

- 각 연회장 메뉴 10% 할인
- 음료·주류 50% 할인
- 객실 이용권 증정
- 현수막 1ea 무료제공
- 빔프로젝트 무료제공

※50명 이상 행사시 적용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클럽

특별회원 모집 [개인 (월) ₩300,000원] - 회원 특전 -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10% 할인
- 객실 이용시 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

문의 및 예약 ☎ (062)221-4101~3, 228-8000